충청남도
복지정책 Brief

2020. 09
VOL. 02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충·만

행복한 복지 충남이 만듭니다.

인사말

03 인사말

특별인터뷰

04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정책이슈

08 코로나19와 아동학대

10 COVID-19시대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12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14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돌봄 현황과 이슈

16 사회서비스원의 이해와 과제

18 충남복지재단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합니다.

20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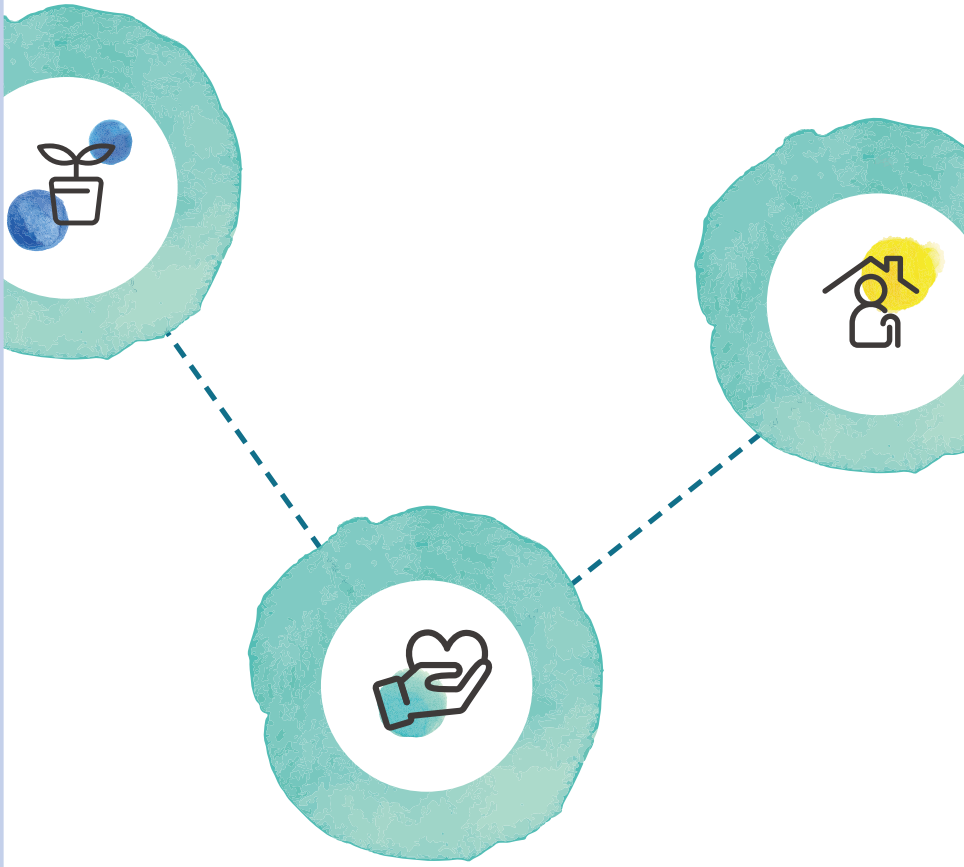
실천이슈

21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회원들과 만난 '태화샘솟는집'

23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속에서 전국복지관 최초 온라인 개관 "방구석 복지관" 이야기

특별기고

25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충청남도복지재단
CHUNGCHEONGNAM-DO WELFARE FOUNDATION

행복충만

CONTENTS

인사말

특별인터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정책이슈
1. 코로나19와 아동학대
2. COVID-19시대 사회적경제와청년정책
3.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4.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돌봄 현황과 이슈
5. 사회서비스원의 이해와 과제
6. 충남복지재단이 충청남도사회 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합니다.
7.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실천이슈
1.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회원들과 만난 '태화샘솟는집'
2.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속에서 전국복지관
   최초 온라인 개관 "방구석 복지관" 이야기

특별기고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발간위원

박준태 (충남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박남신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장)
정덕진 (충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이상진 (충남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최승진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시설지원팀장)
이영화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서비스관리팀장)
이수영 (충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행복한 복지, 충남이 만듭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나마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기술력, 높은 시민의식, 투명성,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영역은 사회복지일 것입니다. 위기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복지재단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충청남도 민선7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환에 앞서 「행복충만」 2호는 충남의 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대책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추진상황, 변화되는 서비스내용도 담았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것이며, 기존 민간복지영역의 지원방법을 개발하여 민관이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연구와 직접 서비스를 병행하고,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충남형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상이 성공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상생 발전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일환**

SPECIAL INTERVIEW

특별인터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충청남도 도지사 **양 승 조**

충남에서 가장 바쁜 1인, 양승조 도지사! 민선7기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있노라면 잠을 잘 시간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충남도민의 안전, 삶, 행복을 위해 일하는 양승조 도지사. 2018년 7월에 시작된 민선7기 '양승조표 복지'가 궁금해 행복충만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만났다.

"코로나19 대응과 수많은 도정으로 많이 바쁘시죠? 민선7기 2년의 시기를 보낸 소회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취임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말씀드렸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방정부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최고등급(SA), 정부합동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노력한 동료들과 도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2020.08.14.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영상회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충남을 유지하고, 태풍 등 재난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08.14.
금산 수해복구 봉사활동

"민선7기 2년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되어 1호로 결재한 사업이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입니다. 현재 도내 2,773개소에서 임산부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은 올해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중 1부터 시작하는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제도>,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 등을 펼쳐 출산친화 지역으로서 그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07.05.
임산부, 아이동반 전용 매표창구 개소식



2019.11.04.
노인복지관 어르신대축제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고령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고, 또 안정적 생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과 건강한 이동권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도록 <노인대학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이 복합된 <고령화 복지주택>도 설계를 완료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갖고 매진해 온 분야가 바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깊이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양극화대책팀>을 신설하여

<충남형 양극화 대응 비전>을 마련하였고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을 강화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경제취약계층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권리와 안정에도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220만 도민 모두를 보장하는 <도민 안전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농어민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시간>을 연장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충남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그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구성된 <여자 태권도 팀>과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 실업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2018.11.03.
천안 광덕면 연탄봉사



2019.11.20.
충청남도복지재단 출범

앞으로 남은 2년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후반기 도정운영의 배경 전망은

①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맞물려 후반기 2년은 각종 현안이 쟁점화 될 전망
② 경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이 최고 우선가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③ 사회적으로 비대면, 언택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④ 지역적으로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이슈로 크게 부가될 전망 입니다.

저는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도정의 안정적으로「마무리하고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변혁에 준비한「포스트-코로나19 대응」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년 11월 충청남도복지재단이 개소하였고, 올해 후반기에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충남복지재단의 경우 오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충남형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과 복지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비대면, 언택트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위기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구요. 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안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에 충족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민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저 또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글 : 이수영 / 사진 : 충청남도 열린도지사실 활동사진첩



POLICY ISSUE

08 코로나19와 아동학대

10 COVID-19시대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12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14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돌봄 현황과 이슈

16 사회서비스원의 이해와 과제

18 충남복지재단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합니다.

20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코로나19와 아동학대

1 박사
김 평 화

코로나 19는 보건 의료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교육, 외교 · 안보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는 물론 자영업자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의 확산, 그리고 감염자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중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집단은 아동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의 제한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일상이 장기화되고, 양육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이동제한, 고립과 양육스트레스가 맞물리며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동들이 오히려 가정 내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아홉 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확산된 2월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19건으로 지난 해 신고건수인 725건과 비교해 약 194건이 증가하였다.

학대의 증가와 함께 방임에 대한 노출도 높아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가 아동 · 청소년에게 미친 일상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에 달하였다(정익중, 2020).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지원현황 및 욕구조사」에서도 집에 아동끼리만 있거나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전체의 38%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아동 혼자 3시간 이상 있는 나홀로 아동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이 두 연구의 결과는 지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홀로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27.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동방임의 비율이 더 높아졌음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휴교로 인해 아동이 혼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TV, 컴퓨터, 휴대폰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디지털 중독이나 유해매체 몰입, 성범죄 등에 대한 노출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감염병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가정 내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대비한 촘촘한 돌봄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 19상황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노출은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신고건수는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경찰청 112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월 887건, 4월 999건, 5월 109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신고건수가 3월 1,030건, 4월 1,207건, 5월 1,405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대면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신고의무자들이 가정 내에서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과 대면할 기회가 줄어들며 이에 대한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6월, 2020년 1월~6월 아동학대로 신고된 월별 상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년	903	725	1030	1207	1405	1470
2020년	919	919	887	999	1099	1841

출처: 경찰청 112 아동학대 신고건수

정부는 매년 상승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사전예방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27개의 방안 마련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공무원이 직접 학대를 조사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확정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증가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맞추어 충청남도 역시 보육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복지사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보호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대 고위험 아동을 발견하고 예측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68개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4개가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학대아동 발굴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부족하다. 아동학대 사례개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지자제 시군구별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확충도 절대적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방임과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정책이 필요하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긴급돌봄이나, 돌봄서비스의 확대 역시 필요하지만 기관과 가정이 함께 돌봄을 맡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김미향, 2020). 돌봄체계의 구축은 노동정책과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들의 적극 시행과 동시에 취약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돌봄 분야의 적정한 수의 인력 확보와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의 근무여건 개선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112 아동학대 신고건수
정익중(2020). 코로나19 전후 아동 일상변화와 행복. 2020 제17차 아동복지포럼.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대응
정부부처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정부부처합동(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김미향(2020).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탐색. 평생학습사회, 16(1), 27-52.

COVID-19시대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2 (재)충청남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오 정 아

COVID-19는 2020년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IMF를 비롯 경제전망 기관들의 예측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4.9%로 예측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도한 부채누적에 따른 금융부실에서 출발한 기존의 위기가 아닌 감염병이라는 경제 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크다(박성욱, 2020)[1]. 즉, COVID-19가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취하는 봉쇄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더 나아가 한국사회 경기침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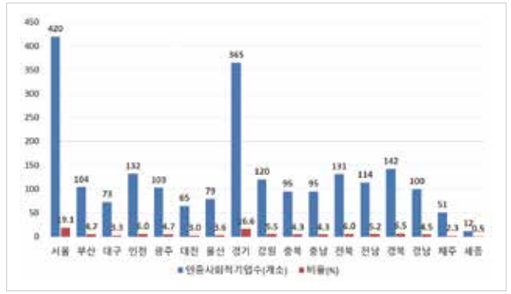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점,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 등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하고, 디지털 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 및 경제 성장의 정상경로를 회복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2].

이러한 정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원리가 작동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참여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조직원들의 회비와 출자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상품, 서비스,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European Union, 2013; 오정아 외 2019 재인용)[3]. 사회적경제조직이 제공하는 보편적 가치서비스는 사람들의 복지에 효과적인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건강·교육·보호와 사회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기초 토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COVID-19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BALTA, 2019)[4].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은, 2019년 3월 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은 총 2,154개이고, 협동조합은 15,812개, 마을기업은 2018년 3월 기준 1,514개, 자활기업은 1,173개이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은 어떠한가? 먼저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충청남도는 전국 17개지역 중 충청북도와 함께 공동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전국에서 11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 광역단위에서는 경북이나 전북 등보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성장률이 더딘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및 협동조합 설립 현황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9.5.)[5]

각 주

1) 박성욱(2020). 주요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경제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형 뉴딜정책
3) 오정아 외(2019). 경상북도 여성사회적경제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4) BALTA. (2019). BALTA's scaling innovation for sustainability project. https://balta-sis.ca/about-2/baltas-scaling-innovation-for-sustainability-project-2/. Brown, Jim. (2003).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onference, Surrey University.

구분	합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서울	3,694	3,277	23.2	384	26.8	28	38.9	5	33.3
부산	775	732	5.2	34	2.4	8	11.1	1	6.7
대구	650	616	4.4	31	2.2	3	4.2	0	0.0
인천	451	386	2.7	64	4.5	1	1.4	0	0.0
광주	810	774	5.5	32	2.2	4	5.6	0	0.0
대전	627	561	4.0	58	4.1	5	6.9	3	20.0
울산	281	262	1.9	18	1.3	1	1.4	0	0.0
경기	2,814	2,420	17.1	385	26.9	5	6.9	4	26.7
강원	854	779	5.5	75	5.2	0	0.0	0	0.0
충북	486	445	3.2	36	2.5	5	6.9	0	0.0
충남	643	598	4.2	43	3.0	1	1.4	1	6.7
전북	1,010	966	6.8	42	2.9	2	2.8	0	0.0
전남	815	770	5.5	43	3.0	2	2.8	0	0.0
경북	719	648	4.6	70	4.9	1	1.4	0	0.0
경남	646	557	3.9	85	5.9	3	4.2	1	6.7
제주	255	232	1.6	22	1.5	1	1.4	0	0.0
세종	114	102	0.7	10	0.7	2	2.8	0	0.0
합계	15,644	14,125	100.0	1,432	100.0	72	100.0	15	100.0

자료: COOP협동조합(2019.6.)[6]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자치단체 맞춤형 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COVID 19사태와 같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나눔과 공유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미래 경제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사회적경제는 IT나 AI 등 디지털기반 사업을 비롯하여 친환경 농업이나 로컬푸드 등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 하다.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몰이나 청년 창업공간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모여들면 원도심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이지만 정책의 성공여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 자생력과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는 성장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이후 성장기업 맞춤형 지원에 특화된 공간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머니투데이, 8.13)[7].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미 유럽과 서구에서는 국가 경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COVID-19로 전세계 경제가 위기인 현 시점에서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부정책에 맞추어 우리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어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강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즉, 나눔과 공유 등을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따라서 청년 사회적경제인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가치 실현의 이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주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9 5월 방문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6) COOP 협동조합 : 2019.6월 방문 http://www.coop.go.kr/COOP/
7) 머니투데이 (2020. 8. 13) 사회적경제기업 키워 6만4000개 일자리 만든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311341561329&outlink=1&ref=%3A%2F%2F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3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 명 민

코로나 19라는 신종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가 팬더믹의 종식 이후가 아니라 팬더믹 현상 이후라고 한다면 이미 포스트 코로나는 시작된 셈이다.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불안정성의 증가는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울을 의미하는데 임상적 증상인 우울증과는 구분되지만 이것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신종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위기관리, 경재적 영향, 정보기술과 더불어 '정신, 심리, 정서'와 관련된 키워드가 각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유빈, 2020).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특히 충청남도는 우울경험과 자살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비책을 강화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련 연구들을 통해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둘러싼 강원, 충남, 충북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밀려난 인구 특성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가구소득과 자살충동은 거의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충남 사회조사). 더불어 충남인 특유의 양반문화는 감정표현을 억제하고 도움요청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다(최명민 외, 2015).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충청남도, 2019)[1]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인데 이것이 관련 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인지 도민의 어떤 성향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림 1]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건강 및 서비스 영향



(출처 :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 2020, 정신건강동향 18호)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UN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은 각국이 그동안 정신건강증진, 예방, 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체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하면서, 수 억 명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처음에는 신체건강의 위기로 시작할지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정신건강 및 복지가 모든 국가의 회복과 대응을 위해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1)정신건강증진,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사회전반에 걸친 접근 (2) 응급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의 폭 넓은 이용 보장 (3)정신건강서비스 구축을 통한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지원을 들고 있다(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 2020)

한편,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적 지원, 즉 소득에 대한 보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팬더믹에 의한 새로운 위험은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경직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본권을 인정하는 소득보전체계가 긴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유동하는 개인, 유동하는 노동을 위한 보편적 소득보전 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임정기, 2020). 중앙정부 단위의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도 고용과 연관되지 않는 현금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1인가구, 특히 이혼에 의한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2019년 충남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1인가구 중 자살충동을 경험한 경우는 3.7%로서 다인가구 2.6%보다 놓고 혼인상태별로 보면 이혼의 경우 전체의 6.2%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 등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시기에는 모두가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발적인 격리를 시행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호전될 경우 다시 이전의 관계양상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어려운 조건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심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고비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에 가장 잘 대응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중 충청남도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피고 전염병이 가져오는 공포, 걱정, 낙인 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회복을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빈, 2020,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의기투합", 코로나 19, 동향과 전망, 276-296.
임정기, 2020,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안전망", 현안과 정책, 311호.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 2020, "UN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정신건강동향, 18.
최명민, 김가득, 김도윤, 2015, 충남 자살자 심리사회적 원인조사(부검)와 유가족 지원사업 보고서,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청남도, 2019, 충남 사회조사.

각 주

1)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인데 이것이 관련 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인지 도민의 어떤 성향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돌봄[1]의 현황과 이슈

4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 세 융

01. 들어가는 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월 27일 전국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휴관권고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장기요양신청자 방문조사 중단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역시 일제히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방역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례가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현장은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다.

이후 감염 확산의 안정화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면서비스로 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7월말부터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이 운영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유지되는 상황속에서 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주

1) 노인돌봄은 기존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등 6종의 돌봄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재가급여가 대표적임. 2020년 6월 기준 충남지역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노인 수는 24,395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66,617명임.

02.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현장의 대응

코로나19의 감염이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요양시설들은 예방적으로 코호트 격리[2] 수준의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외부 감염의 노출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족들과의 면회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입소 노인들이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비대면 면회서비스 공간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재가 돌봄서비스 역시 대면을 최소화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을 통한 안부 확인을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개인 방역 위생물품이나 생필품, 대체식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03. 코로나19 이후의 노인 돌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전문가들은 이전의 일상으로 회귀는 어렵다고도 이야기한다. 그 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돌봄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였으나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도 나타나 이번을 계기로 노인돌봄 정책의 변화와 대안 모색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선도사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충남은 천안시와 청양군이 선정)과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AI나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인들은 대부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안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노인의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시 그 위험도가 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공간과 지역사회안에서 욕구에 따라 주거, 보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과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 의료, 요양, 돌봄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시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돌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 되었다. 휴먼서비스인 돌봄의 영역을 비대면 서비스가 대체 할 수는 없으나 보충적 차원에서 그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AI나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운영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3]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장비의 LTE기반 통신서비스로 교체를 통해 기존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제한적인 서비스에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기관, 보호자 등과 상호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산지역에서는 8월부터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구에 생활 정서 안전관리 토이봇 부모사랑 효돌 을 보급하여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체온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성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4] 나면서 우려했던 2차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위기 상황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상황시 대응 체계나 노인돌봄 정책에 대한 보완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노인이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정도가 제한되거나 약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각 주

2) 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별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조치의 적시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음. 또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논란이 있었음.
3)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사업임.
4) 연합뉴스 (2020. 8. 16), 사흘간 무려 548명…전방위-동시다발 확산에 '2차 대유행' 양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5052951530?input=1195m에서 2020. 8. 16. 인출.

사회서비스원의 이해와 과제

5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부단장
이 대 영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대구와 서울,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7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1] 올해가 지나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11개의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이 되고, 2022년이면 17개 모든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나볼 수 있다. 본 글은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 그리고 더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고령인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제공이 더 이상 개인 가족 책임이 아닌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돌봄의 사회화'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간 민간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보완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직접 설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향상과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기대효과

2020년 8월말 현재 서울, 대구, 경상남도, 경기도, 광주, 세종 등 6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 중이다. 그리고 충청남도를 비롯한 강원,도 인천, 대전 등 시도에서 올해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 공립 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하는 신규 국 공립 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위 불법 사유가 발생했거나 평가가 저조한 국 공립 시설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국공립 시설을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 국 공립 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노인돌봄,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통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가서비스 통합제공기관이다.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그동안 개별사업별 제공기관이 분절적으로 지원했던 재가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재가센터는 2019년도 서울과 대구, 경남, 경

각 주

1) 2020년 7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20.8.27 개원예정) 6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예정 포함)

기에 10곳이 문을 열었고, 2022년까지 135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셋째, 민간기관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민간기관에게 재무 회계 노무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자문(컨설팅)해주고, 대체인력 지원, 시설 안전점검 지원, 표준운영모델 마련 및 제공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넷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며 감염병의 확산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등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나 어린이집 교사, 가족 등 돌봄과 보육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적시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공백이 발생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여 요양보호사 모집 및 배치, 어린이집 대체인력 파견, 물품지원 등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은 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제공기관의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휴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은 제공인력의 노동환경 및 제공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 효율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통해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노동자에게는 질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나아가 기존의 민간기관들과 협업 상생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과 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과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안으로 기대를 받고 시작된 사회서비스원이지만 기대만큼 우려와 걱정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2]의 제정이 시급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업운영, 각종 관리체계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시도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안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의 포지셔닝과 위상정립 및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 민간제공기관, 노동자, 이용자 등과 협력 상생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 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 개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강화, 조직 운영체계 표준화, 정책연구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역할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자체 책무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질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앙단위의 정책사업 개발, 표준운영체계 개발, 교육과 컨설팅 등 품질관리, 성과관리 및 홍보, 공동현안 대응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과 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치며

사회서비스원 등장한 것은 불과 1년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의제화 되고 정책으로 설계되어 실현되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쳤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서 현재에 있다. 하지만, 온 길보다 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더 나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쌓고 조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고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와 바람대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가 필요한 때이다.

각 주

2)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2020.6)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임

충남복지재단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합니다.

6 충청남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시설지원팀장
최 승 진

충청남도복지재단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재단 설립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재단의 고유 역할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더해 확대 개편함을 의미한다.

복지재단 설립 배경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안착되고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해 왔다.
충청남도 또한 복지보건 분야 예산액이 도 전체예산의 30%를 초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충청남도복지재단을 출범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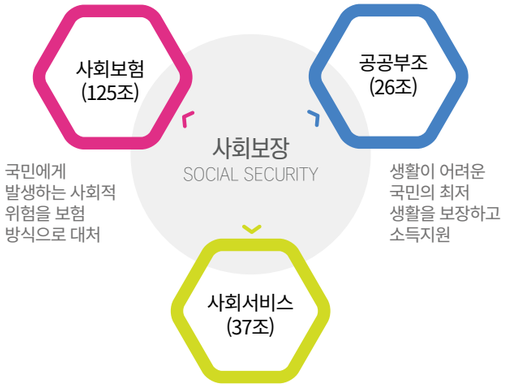
복지재단 주요역할

1) 복지정책 연구
2)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4)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공급의 반쪽짜리 성공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의 큰 틀 안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 한다.

[한경 경제용어 사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 바우처 사업의 도입으로 공급을 확대했으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제공 시설을 대폭 확대했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익이라도 절실한 영세 소규모 민간시설이 자리 잡았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 저하로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

반쪽을 채워주는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이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의 확대 개편 의미는 앞서 이야기 한 *충청남도 복지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정상화작업*에 있겠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충청남도-15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도내 민간사회복지영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틈새복지서비스를 연구·개발해 충남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제공인력**에게는 질 높은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위해 공공시설 관리 강화, 재정관리 투명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공기관**에는 제공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업무부담 경감과 전문컨설팅 지원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
행복한 복지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역할

7 충청남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서비스관리팀장
이 영 화



충청남도복지재단이 올해 연말까지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일자리를 확대하여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고자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핵심사항은

첫째, 제공인력에게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 및 자긍심 제고, 전문성 및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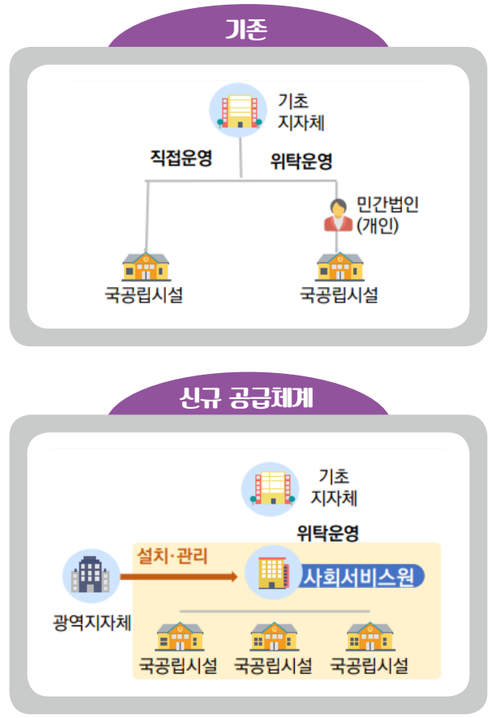
둘째,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 강화, 재정관리 투명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사, 급여, 채용을 본부에서 진행하는 등의 행정업무부담 경감, 권리 의무 주체를 명확화 한다.

넷째, 전달체계는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사업 수행,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격차 완화이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첫째, 국 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비전과 운영방안")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 인력의 고용승계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 내 해당 사업 표준화 방안, 표준 운영 모델 개발 연구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민간 복지시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국공립시설 및 정부위탁사업의 선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맞춤형 종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하여 기본형, 확대형으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지역내 종합적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비전과 운영방안")

셋째, 민간 제공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시설 안전 생활화로 복지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한다.
모니터링 및 사전 사후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으로 나와 민간의 종사자, 서비스 대상자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여 답을 찾도록 할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비전과 운영방안")

PRACTICE ISSUE

21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회원들과 만난 '태화샘솟는집'

23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속에서 전국복지관 최초 온라인 개관 "방구석 복지관" 이야기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회원들과 만난 '태화샘솟는집'

1 충청남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서비스관리팀장
이 영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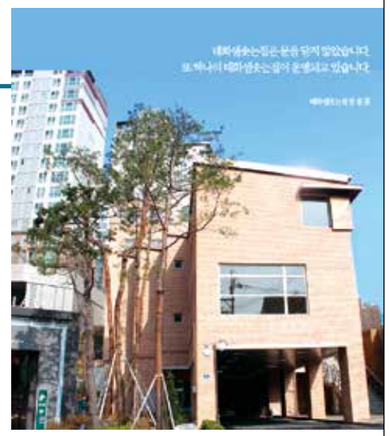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던 날 태화샘솟는집(샘집) 방문하는 길 반가운 햇살이 반겨주었다. 빽빽한 아파트촌 사이 빨간 벽돌이 인사하는 샘집은 참 따스했다. 아래부터는 샘집 배은미부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하였다.

"온택트사회복지 발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토) 오후 휴관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 달쯤 지나 세계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었고 클럽하우스국제연명에서 코로나로 셧다운되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클럽하우스연맹이 한국뿐 아니라 가입된 나라에 질문하고 그 대답을 분류하고 취합하여 다시 저희 보고서 형태로 보내주셨죠.
다시 취합한 보고서를 보내줄 때 앞부분에 짧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관인지 써 주었는데,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은 정신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셧다운 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닌 각기 흩어진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을 했던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본질에 충실해서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래 추구하려는 방향성, 목표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 태화샘솟는집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 가능 https://fountainhouse.or.kr/



온택트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궁금합니다.

3월 급하게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 거죠. 난상으로. 서로 역할을 정하고, 데이터 구입방법, 밴드만들기, 홈페이지개편, 정보 확인 등 급하게 하루 만에 다 확인을 하고 테스트하고 직원들끼리 써보고, 바로 그 날 밴드 오픈을 하고 회원들에게 알리게 되었죠. 그 결과, 공급자 측면의 준비가 미비했죠. 가령 온라인 소통을 위한 장비들, 직원들의 역량(영상촬영, 편집, 콘텐츠 개발 등)이 부족했죠. 서비스 받는 쪽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죠. 이용자 분들도 장비와 데이터, 온라인 소통기술이 문제였죠.

공급자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교육을 받았죠. 회원들을 위해 와이파이 도시락을 대여하고, 태블릿PC를 대여하였어요. 직원 모두 개별적으로 이용자분들을 만나서 사용법을 설명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 기간이 2-3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생전에 휴대폰 사용한 경험이 없는 회원분도 참여하고 있죠.

다양한 비대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타켓과 콘텐츠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회복지기관 이용자들의 비밀 이슈와 회원들의 성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죠. 저희가 꼭 해야 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다루어야 할 콘텐츠가 중요한 거죠. 겁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상처리도 부족하고, 공급자 측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해보니 별 거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일단 해보자, 만약에 안되면 일단 온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분명히 각 지역사회 안에서 비대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하고 있을 텐데 공유할 콘텐츠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분명 서비스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온택트사회복지」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이 특별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뿌리면 이것을 계기로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또한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24시간이라는 점, 회원들끼리 온라인 상의 갈등..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어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첫째는 관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해 시설장님의 의사가 없으시거나 진행의사가 없으면 사실 힘을 받기 어렵잖아요. 둘째, 직원들의 노력이죠.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준 직원들이 선택한 거죠. 방법을 어찌할 것인지 고민이지 직원들의 한마음이 중요했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휴관인 상태에서 안들어가는 비용을 좀 활용했고요.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영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휴관인 상태에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의료쪽은 메르스, 사스 영향으로 단계별로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종사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사회복지 쪽도 이런 지침이 필요한 거죠. 단계별로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때 필요한 거죠. 저는 주체가 어찌됐든 사회복지기관이 하고 있는 점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 분류만 잘해주셔도 기관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상사태에 맞게 공공의 행정, 민간의 서비스 방식, 그 안에서 새로운 노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속에서
전국복지관 최초 온라인 개관 "방구석 복지관" 이야기

2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복지과장
안수경

추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사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상의 규칙을 고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을 뿐이지 각자가 갖고 있는 타임라인은 똑같이 해보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그런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합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회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난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존중을 추구하며, 사람과 사람의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 관계중심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류했다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월 복지관 휴관 권고가 내려지면서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집단 프로그램만 중단되었을 뿐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빈도는 더욱 늘었다. '휴관'은 복지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휴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일 안하는 거죠?"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취약계층 당사자와 상담 횟수가 늘었으며, 후원물품지원 서비스는 기존보다 더 많아져 외근 비중이 높아졌다.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 일환으로 '세상은 멈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슈~'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유행전에는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가격인상, 재고부족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사례관리 당사자분들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났다. '구할 수 없으면 만들어서 제공하자'라고 생각하고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제1탄 손소독제 제작을 시작으로 제2탄 손마스크 제작, 제3탄 아동청소년 간식꾸러미 만들기, 제4탄 특별한 잼! 딸기 잼! 만들기를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었다. 우리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의 각 가정에 소소하지만 특별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외부활동을 할 수 없이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외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아동청소년들은 개학도 하지 못하고 지겨운 집콕 생활이 연속되었다. 휴관 기간도 연장되어 복지관이 멈춰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이 필요했다. 그런 중에 '온라인으로 복지관을 개관 하면 어떨까요?'라고 기관장이 제안했다. '온라인으로 복지관을 개관한다?'가 어떤 느낌인지 와 닿지 않았고, '온라인복지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방구석 복지관'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5개 특화사업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삼행시와 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진정상, 참신상, 재미상으로 구분해서 시상하였다. "코!로나야 너 때문에 매일 / 로!보트처럼 삼시세끼 밥만 하다가 / 나!는 성난 확찐자가 되었어. 이제 그만가라!"와 같은 재미시상자를 비롯하여 시상된 모든 응원 메시지는 매일 한편씩 블로그와 SNS를 통해 공유하였다. 공유된 메시지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담서비스인 사이버 복지를 진행하였다.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채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생긴 어려움 및 긴급지원에 대해 손쉽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보다는 성인과 아동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았다. 카카오톡플러스친구는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대한 홍보와 이용문의 상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빼앗아간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돌려주는 슬기로운 집콕봉사생활이다. 복지관에서 수세미 뜨개질 키트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활동이었다. 완성된 손수세미는 사례관리와 노노케어 당사자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현재 손팔찌 키트, 양말목 키트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례관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위한 방구석 챌린지이다. 복지관에서 매일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면 집에만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하트모양 찾기', '집안일 한가지 하기', '스스로 요리하기', '예쁜장면 사진으로 담기', '코로나19 응원문구 만들기' 등이다. 미션을 수행하면,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해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면 된다. 매일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아이들이 궁금해하면서 참여했으며, 일상의 지루함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의 소소한 일상과 코로나19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시콜콜TV다. 시시콜콜TV 첫 컨셉은 가벼우면서 재미있게 사물(마스크, 손소독제)편과 동물편으로 시작하였다. 직원들의 음성이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였다. "안녕? 난 마스크야. 요즘 나를 안 찾는 사람은 없겠지? 앞으로도 나 많이 착용해줘.", "안녕? 난 손소독제야. 앞으로도 날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손소독제!!". 이후 컨셉은 지역주민을 직접만나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와 달라진 일상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담았다. 그리고 한 지역주민은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이야기 할 때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 전 국민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시콜콜TV는 현재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의 유트브채널이며, 지역주민과 하는 모든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후 전 직원들은 영상촬영이 일상이 되었고, 연말에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계획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2차 휴관 권고가 다시 내려지고 10인 이상 하는 활동을 모두 할 수 없게 되었다. 복지관 기관의 문은 닫혀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불철주야 더욱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개관 형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일부 전환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멈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슈~~'

SPECIAL
CONTRIBUTION

코로나19와 사회서비스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
고 일 환

기온이 올라가면 기세가 꺾일 줄 알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온과 관계없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 확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은 감염증 발생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해 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에는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고나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중증장애인보호시설 등 노약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접촉이 기본적인 일이라서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집단으로 감염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와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비롯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의 초동조치 실패를 교훈삼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해 온 결과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은 천

만다행이지만, 이 기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더욱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로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공공성도 낮을 뿐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이용자의 만족과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복지재단에서는 현재의 복지재단을 연말까지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복지정책 연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재가센터, 요양원, 어린이집, 지역아동 돌봄센터 등을 직접 설립하거나 행정기관이 설립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여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자와 도민이 만족하는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 나갈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나 시설종사자들의 안전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용자 중심 공공재가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적 돌봄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보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운용하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데,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통합돌봄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인력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설별로 소방안전 관리자나 위험물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시설에는 감염병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집단 감염을 예방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감염병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병 대응에 효과가 클 것이며, 아울러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건복지관련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도 시설별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기준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모든 돌봄과 보육서비스 종사자로 확대하고 그 기준도 상향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감염병 관련 선진시스템을 갖추고 잘 대응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준도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복지재단 소식

- **충남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품질향상지원 컨설팅 사업**
  참여대상: 충청남도 내 기관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신청서 접수
  문의: 복지협력팀 안숙경 차장(041-330-2423)
- **민 · 관 협력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참여대상: 충청남도 내 사회복지사
  참여방법: 전화문의 요망
  문의: 복지협력팀 김주희 대리(041-330-2424)
- **2020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예방교육**
  참여대상: 충청남도 내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방법: 전화문의 요망
  문의: 복지협력팀 이영인 주임(041-330-2444)

행·복·충·만

행복한 복지 충남이 만듭니다.

- 복지정책 이슈 및 충청남도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연구팀 (041-330-2437, paulnjohn@cnwf.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복지재단
CHUNGCHEONGNAM-DO WELFARE FOUNDATION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충남전문건설회관 5층
Tel. 041) 330-2400
Fax. 041) 330-2498~9
www.cnwf.or.kr